인도 불상 기증으로 싹트는 韓·印 교류

서울 인도문화원서 4월 30일 통도사 불상 이운법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인도 정부의 통도사 인도 불상 기증을 계기로 양국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인도에 대한 한국불교계의 도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보종찰 통도사에 봉안될 인도불상의 이운을 앞두고 4월 30일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인도문화원에서는 이운법회가 진행됐다.

법회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한 통도사 스님 20여 명과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 스리프리야 인도대사 등 인도대사관 관계자, 여한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축원의식과 함께 인도 전통공연 등이 펼쳐졌다. 이날 이운법회 전 인도불상은 안전문제로 무진동차에 실렸으며, 이운법회서는 불상 사진으로 단에 모셔졌다.

이번에 통도사에 기증된 인도불상은 인도 전통양식으로 조성된 것으로 청동을 주재료로 해 무게가 225kg에 달한다.

이 인도불상은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가 지난해 10월 20일 진행된 통도사 방문서 불교영화 상영 및 불상 기증을 제안하며 인도에서 제작됐다. 이후 2월 16일 인도정부가 조성 중인 불상을 4월 중 한국에 모시기로 하고 통도사에서 봉불식이 준비됐다.

4월 15일 인도에서 특별 제작된 불상이 항공편으로 인도대사관 인도문화원에 먼저 모셔졌으며, 이날 이운법회를 통해 통도사로 이운이 시작됐다. 이 불상은 5월 16일 통도사 국제템플스테이관에 봉안된다. 통도사 측은 불상 봉안 후 인도문화재 디지털 전시회 및 인도 영화 상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印 전통양식 조성 청동불상
통도사 템플스테이관 봉안
구호 기금 · 물품 전달 예정
"코로나로 시름, 인도 돕자"

이번 불상 기증을 토대로 양국 교류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통도사 측은 법회에서 기금 3000만 원과 방역물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시름하는 인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인도불상 이운법회서 통도사 스님들이 축원의식을 하고있다.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는 "통도사뿐만 아니라 한국불교계의 많은 분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를 이어갔으면 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불교계 협력 뿐 아니라 한국과 인도 국민들의 교류도 확대됐으면 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도 "인도 대사께서 통도사의 아름다움에 무엇을 더했으면 좋겠냐는 말에 인도 부처님 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흔쾌히 인도 정부서 부처님상을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 인도와 한국간의 교류 증대와 함께 부처님 가피로 하루 빨리 역병이 소멸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계종 차원에서 부처님 성도지인 인도 부다가야에 분황사 불사를 진행 중인 만큼 이번 불상 기증을 계기로 한 교류확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은 "불교는 인도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문화 교류와 발전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도 분황사 건립도 30% 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인도 수교 50주년과 맞물려 더 나은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조계종, 불교크리에이터 2기 위촉

포교원, 5월 6일 위촉식 개최


제2기 조계종 불교크리에이터 모습.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 포교를 담당할 조계종 불교크리에이터 2기가 위촉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5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크리에이터 2기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총 7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전달했다.

공모전 최우수 크리에이터로는 영상콘텐츠 '마음을 그리는 붓'의 장세경 씨와 웹툰 콘텐츠 '만근화'의 이재영 씨 등 2명이 선정됐다. 우수 크리에이터는 자홍 스님 · 이연수 · 장수현 씨 등 3명이 선발됐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미래 포교를 위해서는 새로운 미디어에서의 불교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활동기간 동안 포교원의 얼굴이 되어 만화와 일러스트 등 신선한 불교콘텐츠로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위촉된 2기 불교크리에이터들은 활발한 창작활동을 통한 불교콘텐츠 진흥에 앞장 설 것임을 다짐했다.

장세경 씨는 "불교 그림 영상을 통해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음을 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말했으며, 이재영 씨도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웹 콘텐츠를 만들겠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런 자리"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포교사단 팔재계 법회 코로나로 취소

5월 4일 운영회의서 결의…범해 스님 "전법" 당부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방창덕)이 5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올해 팔재계수계대법회를 취소키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로 포교사단은 정기연수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제26회 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 연수 등은 7월까지 지역단 권역별로 진행키로 했다.

이날 전문운영위원 포교사 11명에게 임명장도 수여됐다. 교육분야의 성혜란(자명호) 포교사, 복지분야의 김미경(수월관) 포교사가 대표로 임명장을 받았다. 또 포교사로서 10년 근속을 한 포교사 148명, 20년 근속을 한 포교사 151명에게 포교사 근속 휘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서는 제8대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포교사단 지역단장 간의 첫 인사가 이뤄졌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회의 전 법문을 통해 "종단서 포교사를 양성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전법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며 "〈화엄경〉 현수품에는 신위도원공덕모라는 말이 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불성 그 근본을 믿고 특정 사람을 믿거나 말을 따라가거나 하면 안 된다. 마음 근육을 강화시켜서 어려울 때 부처님의 진리를 반드시 믿고 의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창덕 단장은 "정관개정 등 중요한 사안이 많아 한 자리에 모셨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차츰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포교사 389명 국제포교사 13명 합격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5월 4일 '제26회 일반포교사 및 국제포교사 선발 자격고시' 필기 합격자를 발표했다. 올해 일반포교사 선발 자격고시(이하 일반포교사)는 441명이 응시했으며, 389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88%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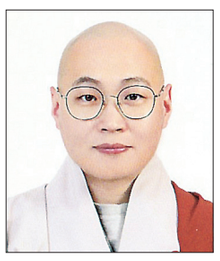
국제포교사 선발 자격고시에는 16명이 응시했으며, 13명이 합격했다. 일반포교사 전체 평균은 75점이고 국제포교사 전체 평균은 62점이다.

이번 합격자 중 최고득점자는 평균 99점, 총점 198점인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의 조OO 응시생이며, 최고령자는 78세, 최연소자는 24세로 기록됐다.

일반포교사 합격자들은 이후 온라인교육과 지역별 현장연수 등의 과정을 통해 10월 경 최종합격자로 선발된다. 국제포교사 합격자들은 이후 양성과정과 최종 면접을 통해 11월 경 최종합격자로 선발된다. 노덕현 기자

"대면 · 비대면 불교교육 포교 매진"

조계종 3급 승가고시에 수석 합격한 청라 스님



"3급 승가고시를 응시할 때만 해도 수석 합격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수석으로 합격해서 놀라기만 했죠. 지금도 어떤 소감이 있기 보다는 놀라울 뿐이죠."

조계종 3급 승가고시 비구 수석합격자인 청라 스님〈사진, 광명선원 원주〉은 수석 합격의 소감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선학이나 불교학을 공부하지 않았기에 "우수한 성적보다는 합격만 하자"고 생각하고 고시에 응시했는데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기보다는 놀라웠다"는 것이다.

청라 스님은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출가 후에도 꾸준히 교육학 관련 공부를 이어갔다. 학부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아동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에서 교육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에서 교육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수료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다.

3급 승가고시는 단답형 시험과 논술, 수행이력평가(면접)가 진행되는데 청라 스님은 논술과 면접에서 자신이 배워온 교육학과 불교 포교 방법론을 접목해서 이야기했다.

"코로나19 시대와 관련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현재 광명선원에서 어린이법회를 맡고 있는데 비대면 · 대면 혼합교육의 적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를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이론적 수업을 비대면으로 한다면, 대면은 실습이나 실기를 하는 것이죠. 거꾸로 학습법(Flipped Learning)도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영상이나 자료를 집에서 미리 학습하고, 교육현장에서는 토론,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불교 포교에 적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석합격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에 놓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할 뜻을 내비쳤다. 우선,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잘 준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어린이 · 청소년 불교 학습 관련 교수방법을 교재로 묶어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선원에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좋은 불교 학습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정리하고 교사들이 잘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 자료들을 만들고 싶어요. 우선은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고, 장기적으로 소의 걸음처럼 천천히 하나하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개교 115주년 기념식 개최

5월 4일 본관 중강당서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5월 4일 교내 본관 중강당에서 '개교 1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기념사에서 "학생 50명 남짓의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우리대학은 어느덧 35만 명의 동문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민족사학으로 발돋움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지만,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모아 재학생들이 만족하고 졸업생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더 나아가 민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